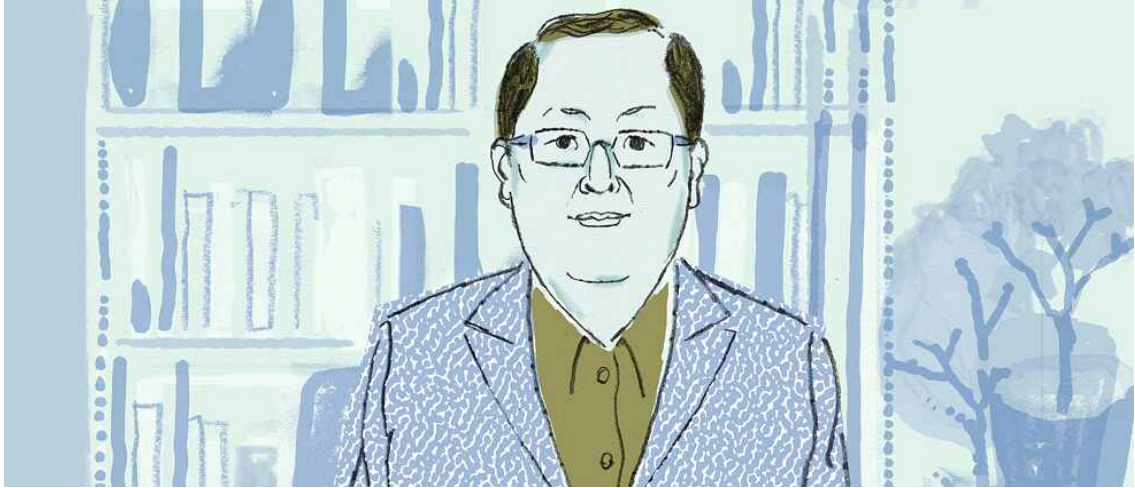


<https://www.goethe.de/de/kul/ges/eu2/ldl/nud/22375741.html>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삶의 전망  
—멀고 가까움의 키워드를 통해서 바라보다

(주광순 부산대 철학과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와 사회에 어떠한 역할이 주어질 것인가? 한국의 주광순은 자유와 권리들의 의미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한 우리가 왜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해서 새롭게 사고하는지 묻고 있다.

코로나 이전 시대의 삶은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적으로도 서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접촉이 빈번해졌다. 이것은 기술의 발달과 소통의 증대 덕택이다. 이것이 가까움의 사회이다. 특히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였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았으나 중국 국경을 폐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밀집, 밀집, 밀폐 속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는 이러한 가까움이라는 삶의 패턴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작년 초에 일어났던 신천지 집단 때문에 생겨난 엄청난 코로나의 확산은 이것을 확인해 주었다. 신천지 교도 중 하나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대구에서 예배에 여러 번 참석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또한 그 지도자는 보건당국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았다.

그러므로 안전수칙들과 방역은 필수가 되었으며 언택트가, 그래서 비대면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예컨대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수업, 배달서비스의 활성화 등은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는 거리두기 사회이다.

### 자연의 역습

코로나는 많은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은 이제까지 방역을 잘 해왔으나 올 여름부터 환자의 수

가 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백신을 급속히 개발했으나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생겨나서 그 효과를 위협하고 있다. 올리히 벡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경고했다. 즉 산업사회들은 자연의 위기, 건강의 위기, 먹거리의 위기와 같은 잠재적 위험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이것들이 실현된다면 어떠한 예외도 없는 지구적인 문젯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사회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들을 이미 예견했으나 그것들을 무시했고 필수적인 조처들을 취하지 않았다. 올리히 벡은 우리 사회와 같이 위험이 실제로 실현된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불렀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룩하는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기후변화나 코로나의 확산이다. 근대화는 인간을 자연과 밀착시켰으나, 이 밀착은 자연과 친밀해지기가 아니라 지구 구석구석까지의 개발이나 자연자원의 고갈과 같은 자연의 착취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을 멀리하기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염병을 자연의 역습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 이것은 멀고 가까운의 역설이다. 경제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위험의 감수의 결과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식능력을 벗어나 있으며 체계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낳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위험하지의 평가를 과학적 전문가들에 의존하는데, 그들은 전체로서 사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은 과장되거나 축소되기 쉽다. 그리고 그들의 위험 평가는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방향설정과 같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구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과 그 지식이 경고하는 위험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마련이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위험은 저평가되고 성장이 고평가되어왔다. 이러한 모험의 결과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지위를 뛰어넘고 물리적 거리를 무시하지만 이 모험이 준비한 해독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 약자들의 취약화

그 위험이 가져온 재앙은 치명적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물리적 거리를 초월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지만 그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는 대단히 불평등하다. 왜냐하면 이동과 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들이 육체적으로는 가까워졌으나 이것이 진정한 소통도 아니고 진정한 가까움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제 1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장이 치러야 했던 위험의 감수는 위험의 실현 시에 약자의 심각한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 몇몇 국가는 백신을 일차나 이차로 접종할 뿐만 아니라 부스터샷도 접종하는데 반해서 다른, 제 3세계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일차 접종용 백신조차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만 보더라도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위축은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렸다. 또한 고용위축과 소득위축은 주로 저소득가구에 몰려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성에 더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서비스 일자리나 비정규직에 여성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휴교 등으로 인한 육아부담은 여성이 주로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은 더 가혹하게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함께 작업하며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잔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감염에 쉽게 노출된다. 근대화는 세계를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하나로 묶어놓았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국가들과 개인들을 갈라놓았다. 그러므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의 멀고 가까움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 권리로서의 자유

코로나는 경제적인 근대화과정들과 위험사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은 무시하고 단지 경제성장만을 촉진시키는 정책에 수정이 가해지게 만든다. 그 이외에도 코로나는 특히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발달시킨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 문제이다. 근대는 자유의 확장의 역사이었다. 한국도 개발독재와 그 뒤의 보수정권 하에서 정부의 억압적 기능을 주로 목도해왔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 온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독재정권들에 대한 투쟁과 대통령의 파면과 같이 한국 사회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 여기서 자유는 권리이고 권리는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거리두기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공동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은 소위 K-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민들의 일상적 안정성과 활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 정부는 감염자 대상 철저한 추적 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높은 수준의 진단역량, 공공의료체계,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사실 근대의 개인의 권리 강조의 사고는 너무 일면적이다.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공동체의 역할은 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언제나 필수적이었다.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일반시민의 역할과 권리의 변증법이다. K-방역에서 단지 정부의 역할만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고, 시민들의 역할도 그러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정부의 지침을 따랐다.

이것들 둘은 서로 모순적이지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성장은 풍요와 안락을 가져오지만 오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그리고 핵폐기물과 화학물질의 과도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킨다.

인권과 같은 개인의 권리의 강조는 정치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권리들의 과도한 강조는 사회적으로 분열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리들에 대해서 말할 때면, 우선 그들 각자의 권리들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들이나 전체 공동체에 대해서는 쉽게 무감각해진다. 이제 경제적 발달과 잠재적 위험 그리고 개인의 권리들과 사회와 개인의 역할들 사이의 균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질문할 때이다.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인간들은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자연과 인간의 함께 삶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South Korea

## LIFE PERSPECTIVES FOR A TIME AFTER COVID-19

What role will state and society play in a post-COVID era? Kwang Sun Joo speaks about the meaning of freedom and rights in South Korea and why we should be thinking about a new world order.

By Prof Kwang-Sun Joo

To be successful in the pre-COVID-19 era, one had to be globally and locally connected. This society of proximity is possible, thanks to technological progress and enhanced communication.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Korea and its export-oriented economy. When the pandemic first started, the government in Korea was aware of the emergence of an infectious disease in Wuhan, but could not ban entries from China. Given that the coronavirus is transmitted through close contact and in crowded spaces, behavioural patterns of proximity that bring us physically close are however no longer a feasible option. The massive outbreak caused by the Shincheonji sect in early 2020 proves the point. Despite showing symptoms, a follower of the evangelical sect attended several church services in the city of Daegu infecting many people in the process. The leaders of the sect were accused of not having worked sufficiently with the health authorities and of being equally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COVID-19 infected people. Safety regulations and prevention have now become indispensable and the 'untact' culture, which is a contact-free culture, is growing. Measures such as quarantine, social distancing, mobile work, remote learning and the increasing use of delivery services have become the norm in Korea, too. The society in times of the coronavirus is a society of physical distance.

#### NATURE STRIKES BACK

The coronavirus is putting many lives at risk and is causing economic hardship.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the situation will improve. Korea had the crisis more or less under control but the number of new cases has been rising since summer 2021. Although, it did not take long to develop a vaccine, the virus has mutated and the variants could compromise the effectiveness of the vaccines. In his book *Risk Society*, the German sociologist Ulrich Beck warns that potential hazards such as the threat to nature, health, nutrition, are systematically created by industrial societies; when real, these hazards and risks could become a global problem, with no exceptions. Industrial societies saw the risks coming yet ignored them and did not take the necessary counter measures. A society like ours in which the risks and hazards are real can therefore be described as a risk society.

The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at any cost include climate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pandemic. Modernisation brought people closer to nature. However, the proximity to nature was not about an intimacy with nature but more an exploitation that included opening up each and every corner of the Earth and depleting its natural resources. In a certain sense, this could be seen as our alienation from nature and as nature's counter attack in the form of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The paradox of proximity and distance. We are unable to see the risks involved in achieving economic growth, risks that are leading us to systematic and irreversible disasters. For an assessment of the risks involved we rely on scientists and experts, who are unable to judge the situation as a whole, so they often end up overestimating or underestimating the risk. Moreover, their risk assessments are shaped by social status, economic interests or political orientation. In other words, the knowledge that guides modern society and the risk it warns us of, are political in nature. While the

consequences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or physical distance may be the same, the damage caused is unequal.

#### WEAKENING THE WEAK

The development of mobile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people closer, but this is not real communication, nor genuine closeness. In its pursuit of growth, the global North monopolises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A pursuit of economic growth leads to a disastrous outcome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in weakening the weak. In some countries, not only are people being vaccinated once or twice, but also receive a third shot, a so-called booster shot, while in most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even a single dose is difficult to obtain.

In Korea, a fall in consumer demand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n has had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vulnerable groups. Small entrepreneurs, freelancers, hired workers or internal subcontractors have lost their jobs. On top of this, the decline in employment and income is concentrated primarily among low-income households. Women have been particularly hard hit by social distancing. Not only because they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the jobs in the service industry and engage in atypical work, but also because school closures have resulted in women bearing the burden of looking after the children. Foreign workers and small entrepreneurs have also been hit harder by the crisis. In Korea, many foreign workers work together in factories and sleep together in small, confined spaces. They are therefore more exposed to infections as a group.

#### FREEDOM AS A RIGHT

The coronavirus pandemic raises questions about economic modernisation and the nature of a risk society and spurs the demand for a change in policies that ignore risks and are aimed solely at boosting economic growth. The pandemic has also encouraged us to reflect on the role of the community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The modern age is an age of expanding freedoms. For a long time now, Korea has been highlighting individual freedom, having experienced state repression under a 'developmental dictatorship'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1961 - 1979) and under the subsequent conservative regime (1988-1993). This has played a huge role in shaping Korean society, for example, in the struggle against dictatorships and in the removal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2013-2017). She was suspended from office because of allegations of corruption. Freedom is a right in Korea and a right also means that an individual can move further apart from the community.

As a result of the pandemic, people now expect the community and government to be more actively engaged. In an effort to ensure normali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tried to support citizens in their daily lives through what was known as the 'K-quarantine' model - the name given to the overall strategy to combat the pandemic, based on pop culture terms, such as 'K-pop' and 'K-drama'.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the Korean government did a thorough job of tracking and supporting infected persons, providing transparent information, facilitating accurate diagnoses, improving public health care and setting up an emergency fund.

Modern thought that stresse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ights is indeed too one-sided. In most

cases, the community has invariabl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individual. What we need once the crisis is over is a dialectics of economic growth and risk tolerance on the one side and of the rights and roles of civil society on the other. For the K-quarantine model,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important but so was the role of the citizens. Citizens voluntarily practised social distancing, wore masks and followed the guidelines set by the government.

There is no need to insist on the implementation of only one of these components. Because while economic growth brings prosperity and comfort, it also increases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caused by CO<sub>2</sub> emissions, nuclear accidents and the excessive use of chemicals.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ights – human rights, for instance – might achieve political progress, but an overemphasis on rights can divide society. When speaking of rights, most people first think of their personal rights and are soon indifferent to the rights of others or of society as a whole. It is time to take a critical look at the balance between economic growth and risk and between individual rights and the roles of the community and the individual. The coronavirus pandemic has made people aware that modern society is a risk society in which forces must be united if individuals, nations, human beings and nature are to live together.

#### AUTHOR

Kwang Sun Joo has been Professor of Philosophy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ince 1997. His focus is ancient Western philosophy and intercultural philosophy. 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Cologne in Germany, where he obtained a doctorate degree. He has taught in Germany, Costa Rica, and other countries. Since 2010, Prof Kwang Sun Joo has been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cultural Philosophy. His publications include *Intercultural Philosophy in a Multicultural Age* and *An Introduction to the Politics of Aristotle*.

Translation: From German by Ritu Khanna

Copyright: Goethe-Institut e.V.

October 2021

Südkorea

#### LEBENSAUSSICHTEN FÜR EINE ZEIT NACH COVID-19

Welche Rollen kommen Staat und Gesellschaft in einer Post-COVID-19-Ära zu? Kwang Sun Joo über die Bedeutung von Freiheit und Rechten in Südkorea – und warum wir uns Gedanken über eine neue Weltordnung machen sollten.

Von Prof. Kwang-Sun Joo

Um sich in der Prä-COVID-19-Ära zu behaupten, musste man global und im Inland miteinander verbunden sein. Diese Gesellschaft der Nähe ist dem technischen Fortschritt und einer verstärkten Kommunikation zu verdanken. Dies gilt insbesondere auch für Korea und seine exportorientierte Wirtschaft. So wusste die koreanische Regierung zu Beginn des Ausbruchs der Pandemie, dass in

Wuhan eine Infektionskrankheit aufgetreten war, konnte aber die Einreisen aus China nicht blockieren. Da sich das Coronavirus jedoch durch Nähe, Ballung und Kontakt ausbreitet, kann dieses Verhaltensmuster der Nähe nicht mehr aufrechterhalten werden. Die massive Corona-Ausbreitung durch die Shincheonji-Sekte Anfang 2020 hat dies bestätigt. Eine Anhängerin der evangelischen Sekte besuchte trotz Symptome mehrere Gottesdienste in der Großstadt Daegu und infizierte zahlreiche Menschen. Den Anführern der Sekte wurde vorgeworfen, nicht ausreichend mit den Gesundheitsbehörden zusammengearbeitet zu haben und mitverantwortlich für den Tod von an COVID-19 Erkrankten zu sein. Sicherheitsvorkehrungen und Prävention sind daher unumgänglich geworden, und die „Untact“-Kultur, also eine Kultur der Kontaktlosigkeit, breitet sich aus. Maßnahmen wie Quarantäne, Social Distancing, mobile Arbeit, Fernunterricht und die stärkere Nutzung von Lieferdiensten gehören nun auch in Korea zum Alltag. Die Gesellschaft in Zeiten von Corona ist eine Gesellschaft der Distanz.

#### GEGENANGRIFF DER NATUR

Corona bedroht das Leben vieler Menschen und bringt wirtschaftliche Not, und es ist schwer vorherzusagen, wann sich die Situation verbessern wird. Korea hatte die Corona-Krise bisher relativ gut unter Kontrolle, aber seit dem Sommer 2021 steigt die Zahl der Neuinfektionen. Obwohl schnell ein Impfstoff entwickelt wurde, sind Mutationen des Virus entstanden, die die Wirksamkeit der Vakzine bedrohen. Ulrich Beck warnte in seinem Buch Risikogesellschaft, dass Industriegesellschaften potenzielle Gefahren wie die Gefährdung der Natur, der Gesundheit, der Ernährung systematisch produzieren und dass diese Gefahren, wenn sie realisiert werden, ein globales Problem ohne Ausnahme werden könnten. Die Industriegesellschaften haben dies vorhergesehen, jedoch ignoriert und nicht die notwendigen Gegenmaßnahmen ergriffen. Eine Gesellschaft wie unsere, in der diese Gefahren tatsächlich real sind, kann daher als Risikogesellschaft bezeichnet werden.

Eine Folge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um jeden Preis sind der Klimawandel und die Ausbreitung der Pandemie. Die Modernisierung brachte den Menschen näher an die Natur. Diese Nähe aber war keine Intimität mit der Natur, sondern vielmehr eine Ausbeutung, die die Erschließung jedes Winkels der Erde und die Erschöpfung natürlicher Ressourcen einschloss. In gewissem Sinne kann man dies als Naturentfremdung bezeichnen und auftretende Infektionskrankheiten als Gegenangriff der Natur betrachten. Das ist das Paradoxon von Nähe und Distanz. Die Folgen der Risiken, die zum Erreichen von wirtschaftlichem Wachstum eingegangen werden, sind für uns nicht einsehbar und führen zu systematischen und irreversiblen Katastrophen. Für ihre Einschätzung verlassen wir uns auf wissenschaftliche Expert\*innen, die die Situation als Ganzes nicht vollständig einschätzen können, sodass das Risiko überschätzt oder unterschätzt wird. Zudem werden ihre Risikobeurteilungen nach ihren jeweiligen sozialen Status, wie ihren wirtschaftlichen Interessen oder ihrer politischen Orientierung, konstruiert. Dies führt dazu, dass das Wissen, welches die moderne Gesellschaft lenkt, und das Risiko, vor dem es warnt, politischer Natur sind. Obwohl Folgen des Risikos in Bezug auf d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Status oder die physische Distanz gleich sind, ist der Schaden, den sie anrichten, ungleich verteilt.

#### SCHWÄCHUNG DER SCHWACHEN

Durch die Entwicklung der Mobil-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sind sich die Menschen physisch näher gekommen, aber dies ist keine echte Kommunikation, keine wirkliche Nähe. Aufgrund von wirtschaftlichem Wachstumsstreben monopolisiert der globale Norden die Früchte des wirtschaftlichen Wachstums. Die Katastrophe als Ergebnis des Strebens nach wirtschaftlichem Wachstum führt zu einer ernsthaften Schwächung der Schwachen. In einigen Ländern wird nicht nur einmal oder zweimal geimpft, sondern auch eine dritte Impfung, eine Auffrischungsimpfung, durchgeführt, während es für die Bevölkerung in den meisten Ländern des globalen Südens schwierig ist, auch nur eine einzige Impfdosis zu erhalten.

In Korea hat der Konsumrückgang aufgrund der Infektionsverbreitung schwerwiegende Folgen für die Schutzbedürftigen. Kleinunternehmer\*innen, Freiberufler\*innen, entsandte Arbeiter\*innen oder interne Subunternehmer\*innen haben ihren Arbeitsplatz verloren. Darüber hinaus konzentrieren sich Beschäftigungs- und Einkommensrückgänge hauptsächlich auf Haushalte mit niedrigem Einkommen. Außerdem hat die soziale Distanzierung vor allem Frauen Schaden zugefügt. Dies liegt daran, dass Frauen nicht nur einen hohen Anteil an Dienstleistungsjobs haben und atypischen Beschäftigungen nachgehen, sondern auch daran, dass Frauen aufgrund von Schulschließungen hauptsächlich die Herausforderung der Kinderbetreuung tragen. Außerdem trifft die Corona-Krise ausländische Arbeitnehmer\*innen und Kleinunternehmer\*innen härter. In Korea arbeiten viele ausländische Arbeiter\*innen in Fabriken zusammen und schlafen zusammen auf engstem Raum. Daher sind sie leichter Gruppeninfektionen ausgesetzt.

#### FREIHEIT ALS RECHT

Die Corona-Pandemie wirft Fragen nach Modernisierungsprozessen in der Wirtschaft und dem Wesen der Risikogesellschaft auf und erfordert eine Revision der Politik, die Risiken ignoriert und nur auf Wirtschaftswachstum abzielt. Außerdem veranlasst uns die Pandemie die Rolle der Gemeinschaft und zur Frage des Verhältnisses zwischen Individuum und Gemeinschaft zu reflektieren. Die Moderne ist eine Epoche der Erweiterung von Freiheiten. Korea tendiert seit langer Zeit dazu, die individuelle Freiheit zu betonen, weil das Land in seiner Geschichte staatliche Repressionen unter der Entwicklungsdiktatur unter Präsident Park Chung-hee (1961-1979) und dem nachfolgenden konservativen Regime (1988-1993) erlebt hat. Dies hat die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maßgeblich beeinflusst. Zum Beispiel im Kampf gegen Diktaturen und bei der Absetzung der ehemaligen Präsidentin Park Geun-hye (2013-2017). Sie wurde wegen Korruptionsvorwürfen von ihrem Amt suspendiert. Freiheit ist in Korea ein Recht, ferner ist ebenso die Distanzierung des Einzelnen von der Gemeinschaft ein Recht.

Die Pandemie führte dazu, dass die Bevölkerung eine aktive Rolle der Gemeinden und Regierung erwartet. Die koreanische Zentralregierung und die kommunale Verwaltung versuchten den Alltag der Bürger\*innen durch die sogenannte „K-Quarantine“ – so wird die gesamte Strategie im Kampf gegen die Pandemie genannt, angelehnt an Begriffe aus der Popkultur wie K-Pop und K-Drama – zu unterstützen und so Normalität zu gewährleisten. Zu Beginn der Pandemie initiierte die koreanische Regierung eine gründliche Nachverfolgung und Betreuung von infizierten Personen, eine transparente Offenlegung von Informationen, genaue Diagnosemöglichkeiten, ein öffentliches Gesundheitssystem und



Notfallfonds.

Tatsächlich ist das moderne Denken, individuelle Rechte zu betonen, zu einseitig. Zumeist war die Rolle der Gemeinschaft schon immer für das Überleben und den Wohlstand des Einzelnen von entscheidender Bedeutung. Was wir in der Zeit nach der Corona-Krise benötigen, ist eine Dialektik von wirtschaftlichem Wachstum und Risikobereitschaft sowie von Rollen und Rechten der Zivilbevölkerung. In der K-Quarantäne war nicht nur die Rolle der Regierung wichtig, sondern auch die Rolle der Bürger\*innen. Die Bürger\*innen praktizierten freiwillig soziale Distanzierung, trugen Masken und befolgten die Richtlinien der Regierung.

Es ist nicht notwendig, nur auf die Durchsetzung einer der Bestandteile zu bestehen. Denn wirtschaftlicher Wachstum bringt Wohlstand und Komfort, erhöht aber das Risiko für Umweltverschmutzung und Klimawandel durch Kohlendioxidemissionen, Atomkraftunfälle und durch übermäßigen Einsatz von Chemikalien.

Die Betonung der individuellen Rechte, etwa der Menschenrechte, bringt die Politik voran. Eine Überbetonung der Rechte jedoch kann zu Spaltungen in der Gesellschaft führen. Wenn sie von Rechten sprechen, denken die meisten Menschen zunächst an ihre persönlichen Rechte und sind den Rechten anderer oder der gesamten Gemeinschaft gegenüber schnell gleichgültig. Es ist an der Zeit, das Gleichgewicht zwischen wirtschaftlicher Entwicklung und Risiko sowie zwischen individuellen Rechten und den Rollen von Gemeinschaft und des Individuums kritisch zu hinterfragen. Durch die Corona-Pandemie ist den Menschen bewusst geworden, dass die moderne Gesellschaft eine Risikogesellschaft ist und dass es für ein Zusammenleben zwischen Individuen, zwischen Nationen und zwischen Mensch und Natur unabdingbar ist, Kräfte zu vereinen.

AUTOR

Kwang Sun Joo lehrt seit 1997 als Professor für Philosophie an der Pusan National University. Seine Schwerpunkte sind antike westliche Philosophie und interkulturelle Philosophie. Er hat an der Universität zu Köln studiert und promoviert und unter anderem in dem Deutschland und Costa Rica gelehrt. Seit 2010 ist Kwang Sun Joo Präsiden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interkulturelle Philosophie. Zu seinen Publikationen zählen unter anderem Interkulturelle Philosophie im multikulturellen Zeitalter und Einführung in Aristoteles' Politik.

Copyright: Goethe-Institut e.V.

Oktober 2021